

‘노후 걱정 없는 100세도시’...광주시 고령친화도시 계획

조성위 첫 회의... 2022년까지 2조491억원 투입

노인일자리 확대·장년층지원 플랫폼 등 추진

광주시가 ‘노후가 걱정 없는 100세 도시 행복광주’ 실현을 위한 고령친화도시 조성 3개년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광주시는 20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정중제 행정부시장과 시의원, 기관학계 전문가, 관계부서장 등 14명을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광주 고령친화도시 조성위는 지난해 제정된 ‘광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했다. 앞으로 광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관련 사업과 정책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회의에서 위원들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2조491억원을 투입해 시행하

게 될 고령친화도시 기본계획을 논의·심의했다.

기본계획은 ‘노후가 걱정없는 100세 도시 행복광주’를 비전으로 △일자리 △사회참여·문화 △돌봄·인권 △건강·의료 △생활환경 등 5개 영역, 50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주요 과제는 △노인일자리 확대 △베이비부머 등 장년층지원 플랫폼 및 고을50+센터 설치 △치매예방 특화형 노인복합시설 건립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시행 △치매전담 요양시설 확충 △교통약자를 배려한 ‘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 등이다.

광주시는 이들 과제 수행을 통해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지원하는 사회·물리적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고령친화도시 조성 비전과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의 고령친화도시 국제 네트워크’에 가입한다.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는 전 세계적인 고령화와 도시화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가 추진해온 프로젝트다.

노인을 비롯한 전 세대의 모든 시민이 다 함께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지향하고 있다.

2019년 기준 전 세계 41개 국가 900여개 도시가, 우리나라에서는 서울, 부산, 제주, 수원, 정읍 등 13개 도시가 네트워크에 가입돼 있다.

정중제 행정부시장은 “의료기술의 발달로 기대수명이 100세를 넘어가고 있고 고령화는 도시발전의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광주시도 세계보건기구(WHO) 고령친



정중제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20일 오전 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광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한 후 고령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화도시 네트워크 가입을 시작으로 위원회와 관계기관, 단체들과 협력해 노후가 걱정 없는 100세 도시 행복광

주를 만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담양군,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기본 교육

장애인일자리사업 확대운영, 참여자 40명에게 사회참여기회 및 소득보장



담양군은 지난 16일 사업 참여자 40여 명을 대상으로 2020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직무, 소양교육 및 안전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사업 참여자들의 업

무 수행능력을 높이고 안전교육을 통해 안정적인 근로생활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

한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 보장을 지원하고 근로연계를 통한 자립생활 활성화를 위해 일반형과 복지일자리,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사업으로 구분해 시행하고 있다.

군은 올해 전년도에 비해 10명을 추가로 선발해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지원했으며, 사업 참여자들은 연말까지 본청과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행정 보조업무, 환경정리, 프로그램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군 관계자는 “참여자들의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와 소득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신안군, ‘설맞이 집중 자원봉사주간’ 운영

신안군은 17일부터 23일까지 어려운 이웃이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설맞이 집중 자원봉사주간’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14개 읍·면 자원봉사자 회원 350여명과 여성단체협의회, 농가주부모임 등의 봉사단체들은 설 명절을 맞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떡국과 부식을 나누면서 함께하는 훈

훈한 설명절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지도읍 외 13개 읍·면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저소득 어르신 및 독거노인을 위한 떡국 떡 전달과 안부살피기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비금면 농가주부모임에서는 가산선착장에서 귀성객 맞이 무료 차봉사를 3일간(1. 25. ~ 1. 27.) 실시할 예정이다.

함평군보건소, 정신질환자 사회적응능력 키운다

함평군보건소(소장 정명희)가 오는 12월 17일까지 주 2회(매주 화·금)에 걸쳐 정신건강 한울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역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운영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정신질환자의 재발을 방지하고 사회적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프로그램은 ▲인지재활 ▲일

상생활 능력 향상 ▲음악행동치료(난타·북치기) ▲스트레스 해소 및 정서안정 ▲약물·증상관리 ▲전문가 교육 등이다.

참여는 지역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정신 장애인 또는 정서치료를 필요로 하는 지역 거주 정신 장애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함평=김평춘 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